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혼두라스 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도움과 후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 **총무부:** 주소록이 포함된 2018 교회요람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2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승택 집사 (시 19)

이번 주 친교: 최경자 집사 / 백희진 집사

다음 주 친교: 윤정호 집사 / 김민아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주일에배

- <오후12시> 인도자: 이만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288장 (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다함께
-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22:23-31 ----- 이영중 집사
- 찬양(Choir) ----- “예수가 우리는 부르는 소리” ----- 세광 찬양대
-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 단기선교보고 -----인도자
-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8:12; 9:1-7, 35-41 -----인도자
-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 (4): 빛” (Abundant Life (4): Light)** -- 이만영 목사
- *찬송(Hymn) ----- 286장 (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만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3): 양식 (요6:26-35, 47-58)

유월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지 못하고 갈릴리에 남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양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 물려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알고 오지 못했지만, 그 어린양을 눈앞에 두고도 빵을 찾아 헤맸지만, 목자가 와 계신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맸지만, 예수님께선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실 뿐 아니라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긍휼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빵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며, 무슨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요 4:34).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할 것도, 그러지 못해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금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일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믿읍시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뜻을 헤아리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로 그 분을 높입니다. 큰 일도 하고 신령한 능력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선 그저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믿고 살라고만 하지 않고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거치는 말씀이라 많이 떠나갔습니다. 늘 그러십니다. 그저 은혜가 되는 말씀만 하지 않고 거침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만 주시지 더 큰 병 걸리지 않게 죄 짓지 말라고, 눈만 뜨게 하시지 너희는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용서만 해주는 법 없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살려만 주면 됐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은혜만 주지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월절 어린양 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고, 죄를 통분히 여겨 미워하며 돌아서지 않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고 그의 피와 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 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해 영생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봐야, 은혜를 받아 봐야, 신령한 기적을 체험해 봐야 썩어질 양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이에게 선함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이라도 거듭 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라면 죽은 몸에 영양제 놓는 꼴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영원한 생명을 한없이 살찌게 하는 복된 양식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으십시오.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속죄와 회심의 교리가 아니라, 성찬의 신비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 드리고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삽시다. 그 주시는 양식 먹고 심령이 살아서 산 사람처럼, 살 맛 나게 살아봅시다. 건강한테 아픈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졌는데 불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살았는데 죽을 것만 걱정하며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점점 그 맛을 압니다. 살찌고 건강하게 삽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